
축제·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3년도 8월



동해시의회

- 축제·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기 간 : 2023. 7. 18.(화) ~ 7. 21.(금) (3박4일)
- 여행국(도시) : 일본 홋카이도(후라노, 삿포로, 오타루 등)
- 작 성 자 : 동해시의회 부의장 최명관, 의원 이창수
- 출장대상자 : 총16명(동해시 13명, 동해시의회 2명, 북방물류 1명)

| 연번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번 | 부서명 | 직위 | 성명 |
|----|-------|----------|-----|----|-------|--------|-----|
| 1 | 경 제 과 | 경제관광국장 | 강성국 | 9 | 행 정 과 | 비서실장 | 권수진 |
| 2 | 동해시의회 | 시의원(부의장) | 최명관 | 10 | 기획예산과 | 기획팀장 | 김종두 |
| 3 | 동해시의회 | 시의원 | 이창수 | 11 | 문화관광과 | 관광진흥팀장 | 최호진 |
| 4 | 도시정비과 | 도시정비과장 | 임성규 | 12 | 관광개발과 | 별유천지팀장 | 곽덕호 |
| 5 | 녹 지 과 | 녹지과장 | 심정교 | 13 |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팀장 | 강경희 |
| 6 | 북방물류 | 사무국장 | 최동순 | 14 | 문화관광과 | 주무관 | 조정애 |
| 7 | 건 설 과 | 도로철도팀장 | 홍성표 | 15 | 녹 지 과 | 주무관 | 윤태훈 |
| 8 | 도 시 과 | 도시조명팀장 | 남태길 | 16 | 관광개발과 | 주무관 | 서희빈 |

○ 출장 목적

축제·관광 분야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 5대 권역별 관광지
접목 방안 도출

II 출장 일정

| 일 자 | 도 시 | 시 간 | 내 용 |
|-------------|--------|--------|---|
| 7.18 (화) | 동 해 | 05: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이동(시청 버스, 42인승) |
| | 인천공항 |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여객터미널 도착 및 출국수속 |
| | | 12: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KE769) 이동 : 인천국제공항 ⇒ 치토세 국제공항 |
| | 치토세 공항 | 15: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및 전용 차량 탑승 |
| | 삿 포 로 | 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견학) 오오도리 공원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홋카이도 대표하는 이벤트 개최 장소로 겨울(눈축제), 봄(라일락 축제), 여름(YOSAKOI 소란 축제와 비어가든), 가을(홋카이도의 음식 축제 등) 계절마다 특징적인 즐길 거리(축제)가 있음 ⇒ 조경 등 친수공간, 디자인 조형물, 각종 편의시설 조사를 통해 5대 권역별 관광지 등 접목방안 벤치마킹</p> </div> |
| 7.19 (수) | 후라노 | 오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견학) 시카사이노오카(꽃의 언덕)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언덕에 수십 종의 꽃이 식재된 풍경 명소로 각 계절에 맞는 꽃 식재 : 5월(튤립), 6~7월(라벤더), 7월부터(사루비아 등) ⇒ 꽃 식재, 조경, 편의시설,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시 관광·축제 분야 접목</p> </div> |
| | | 오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견학) 후라노 팜 토미타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계절별 꽃 식재(라벤더, 비룻한, 양귀비, 튤립, 수선화, 금잔디,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 꽃 식재, 조경, 편의시설 등 우수사례 접목, 2024년 라벤더 축제의 완성도 제고, 라벤더 활용 판매상품 벤치마킹 등</p> </div> |

| 일 자 | 도 시 | 시 간 | 내 용 |
|-------------|--------|----------------------|--|
| 7.20 (목) | 오타루 | 오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견학) 오타루 운하, 공방 거리, 과자 거리 등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무릉별유천지, 전천 친수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 시 각종 사업 등 접목</p> </div> |
| | | 오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타루 관계자 면담) 오타루 운하 박람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인구(107,700명), 자매도시(강서구, 러시아 나훗트카), 샷포르 베타타운 - 개척 시 바다와 탄광으로 홋카이도의 대도시였으나, 오타루항 무역이 줄고 광산이 사라져 관광산업이 주고, 대부분 경제는 샷포르에 의존 ⇒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오타루시의 노력 등 소개와 도시재생에 대표적 우수사례 등</p> </div> |
| 7.21 (금) | 샷 포 로 | 오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견학) 홋카이도 쇼가이치바(장외시장), 샷포르 게판 주식회사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샷포르 대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약 60개 점토가 있으며, 게판 주식회사 관계자 설명 ⇒ 수산물(대게 등) 판매·가공유통시설 등 견학 통한 크랩 킹 대게 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p> </div> |
| | 치 토 세 | 14:00~ | ■ 치토세 국제공항 이동 및 출국수속 |
| | | 16:20~ | ■ 항공(KE770) 이동 : 치토세 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
| | 인 천 | 19:30~ | ■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
| 동 해 | 20:00~ | ■ 동해 출발(시청 버스, 42인승) | |

Ⅲ 주요 일정별 세부내용

① 삿포로 오도리 공원

| | | |
|--------------|---|---|
| <p>현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일락과 당느릅나무 등 92종, 약 4,700그루의 나무들에 둘러싸인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 잔디밭과 분수 주변에는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삿포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장소로 봄(라일락 축제), 여름(YOSAKOI 소란 축제와 비어가든), 가을(홋카이도의 음식 축제), 겨울(눈축제)로 계절마다 특징적인 즐길 거리가 있음 ○ 시내 중심부에 위치, 계절별 이벤트를 통해 도심 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음 | |
| | <p>오도리 공원 전경</p> | <p>공원 내 분수</p> |
| |  |  |
| <p>관련 사진</p> | <p>조경사례</p> | <p>조경사례</p> |
| |  |  |
| | <p>조경사례</p>  | <p>맥주 축제 행사장</p>  |

② 사카사이노카(꽃의 언덕)

| | | |
|--------------|---|--|
| <p>현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초순부터는 튜립,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라벤더, 그 외에 금어초나 해바라기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밭 조성 ○ 특히, 여름은 관광의 베스트 시즌으로,形形色색의 꽃이 피어나 언덕 일대가 아름다운 무지개 빛으로 연출됨 ○ 관람 방법은 걸어서 돌아보는 것 외에도 이동 수단(트랙터 열차, 카트, 버리카)을 타고 돌아볼 수 있음 ○ 겨울(12월 초순~4월 초순)에는 넓은 부지를 활용한 스노모빌, 스노래프팅, 썰매 타기 등 겨울스포츠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음 | |
| <p>관련 사진</p> | <p>전경 사진</p> | <p>트랙터 열차</p> |
| |  |  |
| | <p>전경 사진</p> | <p>전경 사진</p> |
| |  |  |
| | <p>기념품</p> | <p>라벤더 아이스크림</p> |
| |  |  |

3 후라노 팜 도미타(라벤더 가든)

| | |
|-----------|---|
| <p>현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라벤더 재배 시작,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1976년 철도(JR)의 달력에 팜 도미타의 아름다운 라벤더 사진이 소개되면서 방문객 수 증가 ○ 1980년에 직접 설계한 증류소를 통해 최초로 자체적인 라벤더 에센셜 오일 생산 하였고, 4년 후에는 FURANO 라는 이름의 자체적인 향수도 생산 ○ FURANO 향수의 성공으로 비누 생산에 돌입했으며, 1990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권위 있는 라벤더 향수 페어에서 1등 수상 ○ 팜 도미타의 입장료는 없으며, 관광객들이 다양한 라벤더 제품 구매, 식당 등에서 소비를 통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각양각색의 라벤더 관련 제품을 파는 여러 상점과 카페, 드라이 플라워 전시 공간, 향수와 라벤더 오일 판매장, 라벤더 오일·비누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 면적 중 절반은 라벤더, 기타는 1년생 화훼식물을 재배하여 라벤더 제품 생산과 관광객 유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

| | | |
|--------------|---|--|
| <p>관련 사진</p> |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 안내도</p>  | <p style="text-align: center;">라벤더오일 추출 공정 설명</p>  |
|--------------|---|--|

| | | |
|--------------|---|---|
| <p>전경 사진</p> |  | <p style="text-align: center;">전경 사진</p>  |
|--------------|---|---|

| | | | | |
|----------|---|--|---|--|
| 관련 사진 | 전경 사진 | | 전경 사진 | |
| |  | |  | |
| | 라벤더 비누 | 라벤더 베게 | 라벤더 오일 | |
| |  |  |  | |
| | 라벤더 활용 생활용품 | 라벤더 과자 | 아이스크림 조형물 | |
| |  |  |  | |
| | 라벤더 화분 판매 | | 라벤더 묶음 판매 | |
| |  | |  | |

4 오타루 시(오타루 운하, 공방 거리 등)

| | | | |
|---|--|---|----------------------|
| <p>현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타루 운하는 1923년 완성 후 북해도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창고를 비롯해 은행, 숙박시설이 들어섰지만, 운하 이용이 감소, 단계적 매립이 이루어지다가 보존해야겠다는 움직임 속에 새롭게 탈바꿈함 ○ 특히, 번성했을 시기에 건축된 각종 창고와 은행 용도 건물이 버려지거나 철거하지 않고 식당, 공방, 상점, 박물관 등으로 개조되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를 연출함 ○ 또한, 오타루 운하 정비 완료(1986년) 후, 유리공예와 오르골 전문점이 입점하면서 오타루 운하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홋카이도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변화됨 | | |
| | <p>오타루 관계자 설명</p> | <p>오타루 운하</p> | |
| |  |  | |
| <p>관련 사진</p> | <p>근대 건축물 활용 상점</p> | <p>석조창고 리모델링(외부)</p> | <p>석조창고 리모델링(내부)</p> |
|  |  |  | |
| <p>오르골당</p> | <p>오르골당 내부</p> | <p>공방 등 상점 거리</p> | |
|  |  |  | |

5 홋카이도 쇼가이치배(장외시장)

| | |
|-----------|---|
| <p>현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구조는 한 건물에는 주 상점과 여러 개의 소형 상점으로 구성되었고, 통일된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건물 간의 차별성과 통일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시장 內 상점 입구 보행로의 폭은 좁은 편이지만, 내부의 진열상태나 상품설명이 잘 되어있으며 상점 앞 적재 라인 준수로 재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느끼는 혼잡함이나 불결함은 없었음 ○ 인근 지역 주민과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장에 그치지 않고 각종 관광 협회와 제휴를 맺어 관광객이 들르는 장소로 명소화하여 시장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었음 |
|-----------|---|

| | | | | |
|--------------|---|--|---|--|
| | 장외시장 관계자 설명 | | 장외시장 전경 | |
| |  | |  | |
| | 대게 판매 | | 대게 판매 | |
| <p>관련 사진</p> |  | |  | |
| | 냉동 대게 판매 | 조형물 | 조형물 | |
| |  |  |  | |

IV 우리시 관광분야 시사점

○ 관광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해야

- 지방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자원은 크게 문화자원과 위락자원을 꼽을 수 있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에서 향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자원이나 인적자원, 인프라자원에 대해 기대치는 높지 않을 것임. 하지만 다양한 방문층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
- 무릉별유천지의 경우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루지, 알파인코스터 등 대규모의 체험시설이 이색적인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게 되고, 관광객이 무릉별유천지에서 기대하는 이미지 또한 ‘번잡한 일상을 벗어난 색다른 공간이 주는 휴식과 체험’이라 생각함.
- 그러나 별유천지와 조경 경치를 조망하는 휴식공간의 부재,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늘 및 휴식 공간 부족 등 방문객의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라벤더 개화시기인 여름에 넓은 공간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카트나 버기카 등 이동수단 대여·탑승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홋카이도 팜도미타 농장의 경우 1958년부터 라벤더 재배를 시작하며 후라노 지방 전체의 230ha 이상, 약 250호 농가가 라벤더 재배에 종사한 전성기도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됨. 이후 급속한 기술진보와 무역 자유화로 싼 향료가 수입되면서 역경을 맞기도 했으나 라벤더밭을 관광 자원화하며 새롭게 도약하게 됨. 농장을 가꾸고 경영해나가는 과정도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으로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경치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홋카이도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게 됨.

- 더불어 별도의 입장료 없이 관광객들이 다양한 라벤더 제품을 구매하는 등 관광지 내 소비를 통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됨. 단체관광객 또는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의 경우, 입장료 또는 주차비 유무가 방문 여부의 주요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유천지의 경치를 기억나게 하는 기념품이나 스토리텔링이 담긴 식음료 판매 등으로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정체성 확립 필요

- 모든 관광지에는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관광지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매력적인 관광지가 됨. 관광산업은 유행에 따라 경쟁 관광지에 의해 모방되고 실제 관광객 취향의 변화에 따라 쉽게 진부해지기 마련임. 하지만 고객의 감성을 자극한 성공적인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은 오랜 기간 해당 관광지를 방문한 방문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고 생각함.
- 무릉별유천지는 이미 ‘시멘트아이스크림’이 무릉별유천지에서 맛보는 필수 코스로서 별유천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도 이어지는 좋은 스토리텔링 재료가 되고 있음. 이러한 폐광지가 주는 낡은 이미지를 숨기지 않고 아날로그 감성,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에 오면 꼭 사야 하는 기념품을 개발·홍보할 필요 있음. 정미소, 제분소, 신발공장, 철공소 등이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무언가를 생산했던 공장이었다는 스토리가 공간에 깊이감과 에너지를 선사하게 됨.

- 오타루의 경우, 운하가 번성했을 당시 건축된 빨간 벽돌의 창고와 은행 용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투박한 외관 그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건물이 주는 투박하고 낡은 이미지를 생각하며 내부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유리공예품과 오르골이 전해주는 밝고 찬란한 이미지가 상반되게 대비되며 관광객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을 참고할 만 함.

○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통한 지역소멸 대응

- 우리나라가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본에서는 관광객 성격인 ‘교류인구’와 진입장벽이 높은 ‘정주인구’ 사이의 개념인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함. 작지만 강하게 연결된 관계인구는 방문지나 연고지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서 축제, 교류, 이주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향후 정주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동해시는 오타루시의 고민과 비슷하게 주로 통과형 관광지로 인식이 강해, 관광지 체류시간이 짧고 일회성 관광지로 그치기 쉬운 상황임. 이러한 동해시 관광환경의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기존에 갖추어진 관광인프라를 정체성을 갖춘 관광지로 강화하고,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서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야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관광시설이 퇴물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 공존하며 나아가 관계인구를 만들고 지방소멸을 늦추는 대안이 될 수 있음. 당면한 이익과 실존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민간분야를 대신하여 지역의 여러 분야를 연계하는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분야의 역할임.

小樽市の観光について



小樽市のプロフィール

- ◆市長 迫 俊哉 Hazama Toshiya
2018年 8月26日～ (現在2期目)
- ◆位置 43°11'17 N 145°59'40 E
- ◆面積 243.83 km²
- ◆人口 107,501人 (2023年6月末現在)
- ◆姉妹都市 ソウル特別市江西区 (2010年7月22日～)
ダニーデン市 (ニュージーランド) (1980年7月25日～)
ナホトカ市 (ロシア) (1966年9月12日～)

小樽市の歩み

| | |
|-------|----------------------------|
| 1880年 | <u>手宮～札幌間に鉄道開通（官宮幌内鉄道）</u> |
| 1922年 | 市政施行 |
| 1923年 | <u>小樽運河完成（着工は1914年）</u> |
| 1967年 | 「第1回おたる潮まつり」開催（今年度は第57回） |
| 1971年 | 小樽自動車道（高速自動車道）開通 |
| 1986年 | <u>小樽運河散策路完成</u> |
| 1999年 | 「第1回小樽雪あかりの路」開催 |
| 2011年 | 東日本大震災発生（3月）北海道に来る観光客も減少 |
| 2016年 | 旧国鉄手宮線散策路が全面完成 |
| 2018年 | 北海道胆振東部地震発生 道内全域がブラックアウトに |
| 2020年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により観光客が激減 |
| 2022年 | <u>小樽市制施行100周年を迎える</u> |
| 2023年 | <u>小樽運河竣工100周年を迎える</u> |

観光入込客数の推移

※ The Financial year starts in April

| The financial year | 2019 | 2021 | 2022 | Compared to 2021 (2022/2021) | Compared to 2019 (2022/2019) |
|----------------------------|-----------|-----------|-----------|---------------------------------|---------------------------------|
| Number of tourist arrivals | 6,991,800 | 2,659,000 | 4,065,000 | 152.90% | 58.10% |

2022年度の観光入込客数は、4,065,000人で対前年度比152.9%となりました。コロナ禍以前の2019年度と比較すると58.1%の水準となっておりますが、徐々に回復していることが数字に表れています。

宿泊客と日帰り客の割合と推移

※ The Financial year starts in April

| The financial year | 2019 | 2021 | 2022 | Compared to 2021 (2022/2021) | Compared to 2019 (2022/2019) |
|--------------------------------|-----------|-----------|-----------|------------------------------|------------------------------|
| Number of overnight guests | 791,700 | 397,500 | 741,000 | 186.4% | 93.6% |
| Number of day visitors | 6,200,100 | 2,261,500 | 3,324,000 | 147.0% | 53.6% |
| Number of tourist arrivals | 6,991,800 | 2,659,000 | 4,065,000 | 152.9% | 58.1% |
| Percentage of overnight guests | 11.30% | 14.90% | 18.20% | | |

小樽市の2大イベント～おたる潮まつり



小樽市の2大イベント～おたる潮まつり①

第1回 1967年 8月4日～6日

当時、経済的にも弱体化しつつあった小樽に活気を与えようという目的で、地域の若手経済人などが中心になり、それまで8年ぐらい続いていた「みなと小樽商工観光まつり」を再編し、新たなまつりを企画した。

2023年の今年は、第57回を数える。

2022年の3日間の来場者数は約90万人。

コロナ禍の2020年は、祭そのものは実質的には中止となったが、モートで潮音頭を踊る「ZOOM潮音頭」の取組で、まつりの火を絶やさないよう努めた。

小樽市の2大イベント～おたる潮まつり②

【主催】

おたる潮まつり実行委員会

おたる潮まつり実行委員会は、市内の経済界や観光関係者などが構成メンバーとなっている。

およそ100名以上にも及ぶ実行委員のメンバーが、総務、財政、広報、ステージなどの様々な役割を分担して、祭りの開催に尽力している。いわば、市民の力を集結したイベントである。

【財源】

財源は、市の補助金が全体の15%程度であり、それ以外は、民間企業等からの協賛金や広告料で賄われている。

(第53回決算：事業総額約3,640万円 市補助金550万円)

小樽市の2大イベント～おたる潮まつり③

【事務局】

おたる潮まつり実行委員会の事務局は、市の観光振興室が担っている。

実行委員会の開催の調整や、金銭の収支の管理、他の行政機関（警察など）との折衝の窓口は、すべて事務局が行っている。

【課題】

実行委員会の担い手の人材が減少している。例えば青年会議所（JC）や、商工会議所の若手のメンバーが減少しており、担い手不足に陥っている。

小樽市の2大イベント～小樽雪あかりの路



小樽市の2大イベント～小樽雪あかりの路①

第1回 1999年 2月11日～21日

観光誘致のあり方を検討する委員会の中で、当時深刻な課題とされていた冬期間の夜の観光客の誘致を、イベントを起爆剤として促進しようという議論がなされた。

小樽の冬と夜の魅力をアピールするために、小樽運河と硝子の浮玉をモチーフの中心に据え、ろうそくの灯りと雪を活用した演出を行うというアイデアが原点となっている。

「市民による手作り感」をイベントのコンセプトとして、イベントの主役は市民一人ひとりであるとし、ボランティアが事業実施の主戦力となっている。

現在（2023年）開催は25回を数え、今では市民ボランティアの他、韓国や台湾などからもボランティアが訪れて、イベントを盛り上げている。

小樽市の2大イベント～小樽雪あかりの路②

【主催】

小樽雪あかりの路実行委員会

おたる潮まつり実行委員会同様、市内の経済界や観光関係者なども構成メンバーとなっているが、いずれにも属さない市民有志が中心になっている。

実行委員のメンバーが、潮まつり同様、総務、財政、広報などの様々な役割を分担して、イベントの開催に尽力しているが、中でもボランティア部会が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のが、潮まつりとの大きな違い。

また、市民一人ひとりがあかりを灯すところは、全てを会場とみなしていることから、会場は市内全域と表現している。

【財源】

財源は、市の補助金が全体の20%程度であり、それ以外は、民間企業等からの協賛金や広告料、キャンドル等の売上で賄われている。

（第22回決算：事業総額約2,122万円 市補助金360万円）

小樽市の2大イベント～小樽雪あかりの路③

【事務局】

小樽雪あかりの路実行委員会の事務局は、潮まつり同様、市の観光振興室が担っている。

実行委員会の開催の調整や、金銭の収支の管理、他の行政機関（道庁など）との折衝の窓口は、すべて事務局が行っているが、実施にあたっての鍵となるボランティアの調整などは、実行委員会が中心に行っている。

【その他】

地域のボランティアなどの主体的な活動によって地域の魅力や個性を作り出していることが評価され、国土交通省の「手作り郷土賞」のグランプリなど、いくつかの権威ある賞を受賞している。

小樽の歴史的資源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



小樽の歴史的資源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①

小樽市の港は、かつて、北海道の経済の海の玄関口として機能し、道外からの物資を受入れ、また、道内から産出される豊富な石炭や農産物を送り出すなどの役割を果たした。

そのため、北海道で初めての鉄道が開通する起点となり、経済の中心地として活気あふれるまちとして大きく成長した。

数多く銀行や商社の本支店が当時の最先端の建築を競って小樽の市街地に軒を連ねた。

しかし、第二次世界大戦後から、日本の高度成長期に国のエネルギー政策が石炭から石油に変わり、港の活気が減退すると、小樽は急速に経済の勢いを失い、北海道の経済の中心は隣町の札幌へシフトした。

さびれたまちには、新しい資本は訪れることなく、札幌のように最先端の高層建築が立ち並ぶこともない。

古い建物は、ただ廃れるのみだった。



港がにぎわっている頃の運河（右手奥は「北海製罐第3倉庫」）

小樽の歴史的資源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②

【運河保存運動の始まり】

街中には、ただ時代に取り残された古い建物が残った。

中でも代表的なものは、「小樽運河」であった。

港の衰退により機能を失った運河は、異臭を放つ忘れられた場所となり果てた。

1966年、小樽市は、新しい道路を造るために運河を埋め立てることを決定した。

その決定に沿って、いくつかの古い倉庫が取り壊されたのを見た市民の一人が、「運河を保存し、自分たちの子孫にこのまちの歴史と文化を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立ち上がった。

運河保存運動（運河論争） 1973年～

小樽の歴史的資源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③

【運河保存運動の展開】

最初に24人で始まった「小樽運河を守る会」の活動は、次第に議論の場を拡大し、小樽市民から全道、全国にまで広がった。

この間、運動はおよそ10年に及んだ。

最終的には、極めて異例の判断となり、全面埋め立ては撤回されたが、議論の結果、半分を埋め立て、半分を残すという結末になった。

かつての小樽運河の幅はおよそ40m。現在は、半分の20mが片道3車線の道路となり、残り半分が、現在の運河である。

石畳の散策路にガス灯がとまり、運河沿いに残ったかつての倉庫が、レストランやビアガーデンに生れ変わった。

運河の再生 1986年～

小樽の歴史的資源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④

【運河保存運動の影響】

およそ10年にも及んだ「運河保存運動」は、市民を始めとして、多くの人々を巻き込んだ論争になった。

中でも、保存派が起こした署名活動は、当時の小樽市の人口、18万人の3分の1を超える、6万5千人の署名が集まった。

また、政治の場においても、市議会はもとより、北海道の議会、そして国の国会でも議論の題材として取り上げられることとなった。

そのような中、歴史的景観を大切にしようという認識が深まり、1983年、北海道で初めての「小樽市歴史的建造物及び景観地区保全条例」が制定された。

小樽の歴史的資源を活用したまちづくり⑤

【運河保存運動の影響】

小樽市は運河保存運動をきっかけに誕生した「小樽市歴史的建造物及び景観地区保全条例」によって、小樽市独自の「歴史的建造物指定制度」を制定した。

1985年の14件の歴史的建造物の指定を皮切りに、現在は79件の歴史的建造物が指定されている。

現在は条例名が「小樽の歴史と自然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景観条例」に変わり、市が指定や登録をした歴史的建造物の外観を保全する経費や、景観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活動に対して助成や融資を行う制度を運用している。

小樽の歴史と文化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

【現在の取組】

「日本遺産の取組」

- ・「日本遺産」は、国の文化庁の制度
- ・地域の歴史的魅力を伝える「ストーリー」を認定する制度。
- ・認定を受けることにより、そのストーリーに沿った事業は、国からの補助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シリアル型》
「北前船」
「炭鉄港」

《地域型》
「北海道の『心臓』と
呼ばれたまち・小樽」

小樽の歴史と文化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

【北前船】

- ・江戸時代（1700年代中頃）から明治時代（1900年代初め）にかけて、北海道、東北、北陸と西日本を結んだ航路を利用した貿易船「北前船」のストーリー。
- ・全国の49市町で構成されている。
- ・小樽市内には、貿易で巨万の富を得た北前船の船主が建てた倉庫や料亭の建物などが残っている。
- ・小樽市の活気は、当時北前船によってもたらされ、港や鉄道や運河の建設につながった。

小樽の歴史と文化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

【炭鉄港】

- ・近代の北海道を築く基礎となった「石炭」と「鉄鋼」と「港」の舞台である「空知」と「室蘭」と「小樽」を結ぶストーリー。
- ・北海道内の12市町で構成されている。
- ・小樽市内には、北海道の内陸から石炭を運ぶために作られた「鉄道」と、それを積みだした「港」が今も残っている。
- ・北海道発展の歴史は、このストーリーなしには語れない。

小樽の歴史と文化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

【北海道の『心臓』と呼ばれたまち小樽】

- ・小樽出身のプロレタリア作家小林多喜二が、エッセイの中で、当時の小樽の様子を「広大な北海道の奥地から集まってきた物産が、そこから又内地へ出て行くいわば北海道の心臓みたいな都会だ」と表現した。その「小樽」のまちが作られた原動力は「民の力」である、とし、まちの衰退と再生を物語るストーリー。
- ・「北前船」と「炭鉄港」のストーリーの完結編ともいえる。

小樽の歴史と文化を生かしたまちづくり

【日本遺産を生かした観光振興】

これまで説明した「日本遺産」の取組を観光振興に活かしている。



KITAMAE-BUNE



北海道の「心臓」と呼ばれたまち

OTARU



小樽観光の課題

(1) 観光資源の整備やPRの不足

歴史的建造物や、生活に根差した地域の文化遺産の保存や継承が困難

(2) 受け入れ態勢の環境整備不足

観光客を受け入れるハード面の環境整備不足。
おもてなしの意識の低さ。
サービスの質・量の不足

(3) 滞在時間の短さ・通過型観光

観光入込客数と比較した宿泊客数の低さ
通過型観光
回遊性を向上させるようなコンテンツの不足

(4) 情報発信の不足

運河周辺以外の、豊かな自然や食文化、地域ごとに特性のある観光資源の掘り起こしが不十分であり、「強み」についての情報提供不足

小樽観光の課題

(1) 観光資源の整備やPRの不足
日本遺産の認定と関連する事業の取組を積極的に行う。(歴史的建造物や地域の文化遺産の掘り起こしと保存への動機づけ)

- ◆ シリアル型 2件
- ◆ 地域型 1件 (候補地域)

(2) 受け入れ態勢の環境整備不足
インバウンドに対応できる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の技術を持ったガイド人材の育成
おもてなし向上のための専門人材による普及啓発事業

(3) 滞在時間の短さ・通過型観光
「小樽雪あかりの路」「小樽ゆき物語」などの冬季夜型イベントの開催
(※ ホランディアツリズム)
ナイトマップ作成
ナイトインフォメーション開設
歴史的建造物のライトアップ

(4) 情報発信の不足
観光プロモーションビデオの活用
(主にアジア圏に向けた発信)
アドベンチャートラベルのコンテンツ開発
海外旅行代理店へのプロモーション
国内旅行博への参加、
SCHOOL TRIPの誘致

